

#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나타나는 ‘아이러니(Irony)’의 교육 연구<sup>1)</sup>

전한성(동국대학교)

## 1. 서론

본고에서는 소설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일 대신에 학습자에게 보다 유의미한 소설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 그리고 학습자의 자아 성장은 소설을 가르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데, 허구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세계와 조응하는지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어떻게 자아 성찰을 도모할 수 있는지 일상의 이야기가 문학이 될 수 있는 ‘형상화’<sup>2)</sup>에 주목하여 소설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형상화란 개별성과 사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개별적 사실을 그려

- 1)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나타나는 아이러니의 교육연구’는 아이러니를 통해 작품의 형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유용함을 획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는 소설교육 방법 연구라 할 수 있다.
- 2) 김대행에서는 문학의 본질을 설명하는 순쉬운 말 가운데서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 ‘형상화’를 꼽고 있다. 김대행, 『문학교육 뜯짜기』, 역락, 2006, 197쪽.

내는 것을 문학의 본질로 볼 때 문학적 속성을 갖추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사 표현이라 할 수 있다.<sup>3)</sup> 그러한 수사 표현 가운데서도 ‘아이러니(irony)’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하여 현행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작품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라는 단원에 실려 있다. 1920년대 식민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식민지 현실 속의 비참한 민중들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하여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형상화 과정을 살펴보고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의 조응인식 과정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자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소설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이러니’의 개념과 종류, 활용에 대한 연구는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영화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준영<sup>4)</sup>에서는 Richard Rorty의 ‘대화’와 ‘아이러니’에 대해 교육철학적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정국<sup>5)</sup>에서는 아이러니의 유래와 의미를 밝히며 그 종류에 따른 활용 실례를 영화에서 찾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도 작품 속에 드러나는 아이러니의 개념과 종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법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현상에 대한 문학 교육적 접근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러니를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상반되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언어의 아이러니, 상황의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소설 작품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 방식의 논의가 대부분이다.<sup>6)</sup> 문학 작품

3) 형상화와 수사적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2005, 106~113쪽 참고.

4) 박준영, 「Richard Rorty의 대화와 아이러니에 대한 교육적 논의」, 『교육철학』, 2003.

5) 이정국, 「영화에서 아이러니의 종류와 그 활용 실례」, 『영화연구』, 2003.

6) 작품을 중심으로 아이러니의 특성을 밝혀 주제를 찾아내는 논문들이 있다. 김상욱, 나병철, 김원희 등은 대부분 작품의 구조와 관련한 아이러니에 주목한다. 인물과 아이러니, 배경과

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의 개념과 양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아이러니 현상에 대한 문학 교육적 접근을 다룬 연구 가운데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김성진(1994), 문영진(2006) 등이 있다. 임경순<sup>7)</sup>에서는 채만식의 풍자를 다루며 아이러니를 언급하고 있지만 연구의 목적이 풍자에 있어 그 논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김성진<sup>8)</sup>은 『삼대』와 『태평천하』의 아이러니를 인식론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수사학의 아이러니가 발전하여 소설의 정신적 멘탈리티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 소설의 아이러니’라고 보고 수사학적 시각에서 작품 속의 현실 인식 관계에 대해 해명한다. 문영진<sup>9)</sup>은 아이러니 서사의 특성과 접근방법, 교육적으로 조절된 읽기의 방법,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읽기와 관련된 교수·학습 활동 구안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등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형상화’의 측면에서 아이러니가 현실세계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작품 속에 재현해내는가, 일상의 이야기가 형상성을 갖춰 한 편의 소설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가운데 학습자는 어떻게 내면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소설 교육적 논의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한 소설교육의 새로운 방향 탐색에 있다. 따라서 먼저 아이러니의 개념을 정리하고 현실 세계와 작품 세계의 형상화 관계 측면에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드러난 아이러니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탐색을 바탕으로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이러니’를 활용한 소설교육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한 수사 표현 기법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 나면 소설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이 때 교육할 내용과 방법

---

아이러니, 대화의 아이러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이러니와 관련한 문학 교육적 접근의 연구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 7) 임경순, 「인물 형상화 양상을 통한 소설교육연구-채만식 풍자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5.
- 8) 김성진, 「아이러니를 통한 소설의 현실인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 9) 문영진,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읽기의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2006.

은 김대행의 국어교육의 내용론<sup>10)</sup>과 수행론<sup>11)</sup>의 논의를 참고하여 마련할 것이다. 김대행은 “국어교육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내용에 대한 연구가 선행해야 함은 물론 중핵을 이루어야한다”고 말한다.<sup>12)</sup> 따라서 지식, 경험과 태도, 수행의 측면에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나타난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목표, 교수·학습의 측면으로 나누어 교육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한 소설교육의 의의를 밝히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일은 학계와 교육 현장의 유기적 연계를 구축할 수 있는 소설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2. 아이러니의 개념과 소설 교육적 의의

### 2.1. 아이러니의 개념

『소설학 사전』<sup>13)</sup>에 나오는 ‘아이러니’의 용어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아이러니는 원래 초기 그리스 희극의 전형적 인물 Eiron의 말과 행동 양식에 적용되었던 용어이다. 패배자로 등장하는 Eiron은 약하고 왜소하며 교활하고 약삭빠르다. 그는 라이벌인 상대역 Alazon을 속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때문에 자신의 힘과 지식을 숨기고 천진함을 가장함으로써 Alazon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된다. 아이러니는 어떤 경우에든 이러한 원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 사실 사이의 괴리(또는 대립)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가 처음 기록된 것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였으며,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는 이 책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대화방식, 즉 무지와 어리석음을 가장

10) 김대행,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10, 2002b, 참고.

11) 김대행,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위하여」, 『국어교육연구』22, 2005, 참고.

12) 김대행, 앞의 논문, 2002b, 16쪽.

13)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2001, 302~303쪽.

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점차 진실의 올라미에 사로잡히게 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로마 수사학자들은 ironia를 대부분 언어 자체가 그 의미와 모순되는 수사학적 비유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다. 케에르케고르는 아이러니가 사물을 바라보고 존재를 관찰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발전시켰으며, 삶의 부조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아이러니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sup>14)</sup> 언어적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가 그것이다. 화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언어적 아이러니이다. 문장의 의미와 화자의 의미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 언어적 아이러니이다. 상황적 아이러니는 대화 참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이다. 언어적 아이러니가 화자의 의도가 담긴 발화임에 비해 상황의 아이러니는 어떤 상황이 우연히 아이러니한 것으로 인식되는 비의도적인 것이 특징이다. 남의 지갑을 훔치려다 자신의 지갑을 도난당한 경우가 상황의 아이러니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극적 아이러니는 화자가 청자에게는 이해 가능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화자 자신이 모르고 있는 낱말을 발화하는 극적 장치이다. 예를 들면, 연극에서 닥쳐올 위기를 청중은 알고 있는데 주인공은 모른 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을 때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아이러니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작품 속의 인물과 인물, 인물과 배경, 인물과 사건, 작품 밖의 작가와 독자, 작품 속의 인물과 작품 밖의 독자와의 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는 어떤 아이러니가 사용되고 있을까. 이 작품은 1920년대 도시 노동자의 비참한 삶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인력거를 끌던 김침치라는 한 노동자가

---

14) 김기찬·김동환, 「개념적 혼성과 아이러니의 의미구성」, 『언어과학연구』, 2003, 6쪽.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리다 모처럼 일거리가 몰리기 시작해 신이 난다. 그러나 일이 자꾸 들어오고 손에 돈이 두둑해질수록 집에 누워 있는 병든 아내 생각에 불안이 몰려든다. 김침지는 일을 마치고 설령탕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지만 결국 죽은 아내를 발견하게 된다. 이상하게도 인력거 장사가 잘 된 하루였지만 사실은 운수가 몹시 사나운 날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대략의 요지이다. 현진건은 인간의 근본적인 비극(허구 세계)으로 축소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감상한 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선 시대의 비극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920년대 노동자의 가난한 삶(허구 세계)이 어째서 시대의 비극(현실 세계)으로 표상될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현진건은 지식인 화자를 등장시켜 노동자의 삶을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서술한다. 그러나 거리감과 동정이라는 화자의 시선은 이 소설 전체를 통해 반복되며 어떤 불길한 징조의 리듬을 확장시킨다.

①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② 그 때도 김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짜리 나무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침지의 말에 의하면, 그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을 것을 그년이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흑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는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 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가 쟁긴다 하고 눈을 홑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③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령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령탕은……. 또, 처먹고 지랄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 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령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세 살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 팔십 전을 손에 쥔 김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④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육십 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매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초해 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이전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⑤ 김침지는 연해 코를 들이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 “뭘,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 “예끼 미친놈, 거짓말 마라.”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빼들쳐 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하고 김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운다.  
“원,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기었다.  
치삼의 잡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 “죽기는 누가 죽어.” / 하고 득의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년이 밥을 죽이지. 인제 나한테 속았다, 인제 나한테 속았다.” /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⑥ 이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비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현진건, 1988)

①은 소설의 첫 문장이다. ‘비’라는 소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의 분위기는 어딘가 우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침울한 분위기는 제목과

대치된다. 이 소설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②를 보면 화자가 김침지의 숙된 말을 빌려 씬으로써 화자와 인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③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자의 시선은 인물의 처지에 은근한 연민을 보내고 있다. ②와 ③에서 보이는 화자의 이중적 시선은 독자와 화자 사이에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시선을 따라가는 독자는 ④를 보면서 화자의 아이러니한 내면을 알 수 있게 된다. 김침지는 이상하게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인력거가 무거워지자 돈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몸은 가볍다. 그러나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이 다시 무거워지며 마음도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내면의 아이러니는 뭔가 불길한 징조를 증폭시킨다. ⑤에서 김침지는 술을 마시며 치삼에게 불길한 마음을 표출한다. 아내가 죽었다는 거짓말은 반어적 표현으로 언어의 아이러니에 해당한다. 김침지는 아내가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아내가 살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치삼에게 아내는 꼭 살아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한다. 그러나 아내가 생때같이 살아있다는 김침지의 말에서 독자는 아내가 어찌되었을 지 짐작하게 되면서 극적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된다. ⑥은 결국 독자들이 김침지의 아내가 죽었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다. 김침지는 죽은 아내를 향해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하고 말끝을 흐린다. 여기서 독자는 김침지가 처한 상황의 아이러니를 알게 된다. 이렇게 독자는 소설이 전개되는 동안 숨어 있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고 그것의 작용태를 이해하면서 점차 김침지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는 결국 소설의 세계를 넘어 현실의 진리를 탐색하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나병철은 지식인과 민중의 만남을 그리는 현진건의 모든 소설은 아이러니를 통해 합리적 시선의 한계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지적한다.<sup>15)</sup> 이러한 지적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지식인과 민중을 만나게 하는 그 같은 아이러니 속에는 민중이 현실모순

15) 나병철, 「현진건 소설의 아이러니와 탈식민주의」, 『현대문학이론연구』13, 2000.

의 희생자라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지식인 화자의 입장에서만 기술한 작품은 민중의 비참한 삶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대로 노동자 화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작품은 지나치게 가난한 민중의 삶에 경도되어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현진건은 지식인 화자를 등장시키지만 노동자가 주인공이 되어 이 둘의 세계를 끊임없이 좁혀보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시도는 곧 글쓰기를 통해 작품으로 나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를 통한 세계의 ‘형상화’라 할 수 있다.

## 2.2. 아이러니의 소설 교육적 의의

아이러니의 소설 교육적 의의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목적과 문학교육의 목적, 소설교육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아이러니의 소설 교육적 의의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행은 국어교육의 목적을 다섯 가지로 제한한다.<sup>16)</sup> 첫째, 개인성장이다. 언어의 발전이 곧 개인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어교육의 목적도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에 두어야 한다. 국어교육은 다른 교과와 달리 언어적 체험을 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데 그 특질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범교과적 도구이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국어가 모든 교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사고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성장 후의 실용이다. 학생들은 삶의 양태가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여 언어적 실천에 임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 계승·창달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며 발전해 왔다. 굳이

16) 국어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는 영국의 새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실무 작업팀이 정리한 것으로 ‘개인적 성장’, ‘범교과적 관점’, ‘성인적 필요’, ‘문화유산의 관점’, ‘문화 분석의 관점’의 영어교육 목적을 재개념화한 것인데, 국어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로 주목할 만하다.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과제」, 『청람어문교육』25, 2002a, 10~18쪽.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제를 떠올리지 않아도 인간이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민족과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존재로 간주하고 그러한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문화분석 능력이다. 다가올 미래는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여 각축을 벌이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개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문화적 환경에 대해 비판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국어교육의 목적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문학교육의 목적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2007 국어과 교육과정<sup>17)</sup>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문학은 인간과 사회 및 역사의 본질을 심미적 언어로 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며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그 가치가 있다. 학습자는 문학을 통하여 창의적인 언어능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정서와 심미의식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확립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

②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동체의 문화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과 ②는 문학 과목의 성격과 목표이다. ①에서는 문학을 통하여 창의적인 언어능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정서와 심미의식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확립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에서는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17) 교육과정이 국어과 교육의 정전일 수는 없지만 교육정책과 현장의 교육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기에, 심화 과목인 문학 영역의 성격과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교육의 목적은 문학능력을 길러 개인의 내면화를 이루고 사회·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설교육의 정의를 살펴보자. 박정숙(2001)은 소설교육이 개인에게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쌓게 해준다고 말한다. 많은 소설작품을 읽으며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쌓은 개인은 자신의 정서를 더 깊이 인식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의 정서에 너그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다음은 소설교육의 정의에 대한 진술이다.<sup>18)</sup>

- ① 소설교육은 심미적 경험을 쌓게 한다. 심미적 경험은 소설 작품의 구조, 의미, 정서적 효과가 밀접한 통일성을 갖고 있음을 알아낼 때 느끼는 즐거움이다. 소설의 예술성을 깨닫고 감탄하는 즐거움이다.
- ② 소설교육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한다. 소설작품은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깊은 속까지 치밀하게 드러내므로 이러한 작품을 계속해서 읽으면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상상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③ 소설교육은 현실 세계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소설 작품을 읽고 자신이 가진 기존의 가치 판단에 의심을 품고, 자신의 가치판단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②와 ③이다. ②에서는 소설교육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진술이 보인다. ③에서는 소설교육이 상대적 관점을 갖게 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

18) 박정숙, 「소설교육에 관한 연구」, 경성대 박사논문, 2001, ‘소설교육의 정의’에 대한 부분 참고.

인격을 갖도록 해준다는 진술이 눈에 띈다. 이러한 진술은 곧 ‘개인의 내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설을 교육하는 일이 개인의 자아 정체를 확립하여 타인과의 생활에서 마찰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방식을 익혀 사회·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기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교육의 기능을 생각해볼 때 어느 정도 그 목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목적, 소설교육의 정의를 차례로 살펴본 결과 이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통점을 추출해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성장’이다. 소설은 개인의 삶을 포함한 현실 세계가 언어의 형상화를 통해 이룩된 의미 있는 문학적 허구 세계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작품의 형상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일을 통해 내면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언어를 통해 예술의 경지로 형상화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장치가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형상화의 장치로 ‘아이러니’를 주목하였다. 문영진은 아이러니의 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19)</sup>

첫째, 아이러니는 담화의 복잡한 운용 양상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언어활동 자체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아이러니 서사의 학습을 통하여 한국 소설사가 생산해낸 풍부한 서사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 습득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셋째, 아이러니 서사는 텍스트 자체와 현실에 대한 발견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러니는 발생한다. 우리는 아이러니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깨닫게 된다. 아이러니는 “통념의 외피에 쌓인 현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수가 있어 삶의 표피를 넘어선 진실에 도달하는 도구”<sup>20)</sup>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나타나는

19) 문영진, 앞의 논문, 248~250쪽.

20) 문영진, 앞의 논문, 250쪽.

‘아이러니’를 통해 1920년대 식민지 현실의 민중적 삶을 피부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속 화자를 통해 당대 지식인의 세계관까지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렇게 하여 획득한 사고를 바탕으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한 소설교육을 통해 개인은 성숙된 내면을 형성하고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아이러니의 소설 교육적 의의는 바로 그러한 데서 비롯한다.

### 3. 내용론

소설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는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대행은 국어교육의 내용을 국어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주목한다.<sup>21)</sup>

그에 따르면 본질에는 체계(system), 행위(behaviour), 문화(culture)가 있고 기능에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사고(thinking), 예술로서의 문학(literature)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여섯 가지는 언어를 다루는 국어교육의 연구 영역이 된다. 이러한 여섯 영역은 다시 네 가지 언어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가 체계라는 본질은 일종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행위라는 본질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수행이라 말할 수 있고, 문화로서의 언어는 어떤 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됨을 생각해 볼 때 수행해야 할 과제로서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그러한 의미과정을 아는 것은 사실로서의 지식이 된다. 의사소통 역시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통을 통해 반응한다. 이러한 소통의 결과가 의미를 형성하는 데 그것은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언어활동이 사고라는 점은 그것이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성격을 분명하게 해 준다. 언어가 예술로서의 재료가 된

21) 김대행, 「국어교육을 위한 언어재개념화」, 『선청어문』30, 2002c 참조.

다는 점은 수행되어야 할 과제일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어 인간에게 던져지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은 경험이고 설명되어야 할 지식이 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언어의 여섯 가지 본질과 기능은 과제, 사실, 정체성, 의미라는 네 측면의 속성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을 통해 우리는 국어 능력에 대한 이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네 가지 언어적 속성은 수행(과제), 지식(사실), 태도(정체성), 경험(의미)이라는 국어교육 내용과 대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소설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한 소설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지식, 경험과 태도, 수행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sup>22)</sup>

### 3.1. 지식

지식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속성 가운데 사실(fact)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어야 할 지식의 내용은 「운수 좋은 날」에 등장하는 ‘아이러니’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러니의 형태는 다양하다. 학습자는 여러 종류의 아이러니들을 작품을 읽는 동안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아이러니는 문자 그대로 의미인 문장의미와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미 사이에 대립이 생기는 언어현상이다. 발화 차원이나 상황적 차원에서 상대방

---

22) 본고에서는 지식, 경험, 태도, 수행 가운데 경험과 태도를 하나로 묶어 논의하고자 한다. 시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삶의 실제적 맥락 뿐 아니라, 삶의 전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때 문학세계의 경험을 통해 생활세계에 대한 개인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일은 곧 자아성장을 통해 이상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태도 교육을 위해서는 결과로서의 태도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해가는 인지의 과정은 곧 학습자의 경험과 직결된다. 따라서 경험과 태도의 영역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분리하여 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험과 태도를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논하고자 한다.

이 인식하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은 언어적, 문맥적, 상황적, 개인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즉 화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것을 표현했다고 해서 모두 아이러니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의도가 청자에게도 공감되어야만 아이러니로서 진정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서 알아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운수 좋은 날」의 형상화를 위해 사용된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다. ①에서는 제목과 소설 분위기의 대립으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②와 ③에서는 지식인으로서의 화자와 노동자로서의 인물 간에 드러나는 시선의 대립으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④에서는 내면의 아이러니를 통해 화자의 심경이 드러나고 있다. ⑤에서는 김침지의 거짓말을 통해 언어(말)의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다. ⑥에서는 이상하게 일거리가 많아진 것이 결국 김침지의 아내가 죽는 것과 대립되어 상황의 아이러니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지식의 차원에서는 학습자가 이러한 아이러니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작품에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어떤 역할과 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는 활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목과 서두의 비 오는 분위기에서부터 발생하는 아이러니는 이 작품의 마지막까지 수사적 장치로써 소설의 주제를 부각하는 점층적 효과를 지닌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아이러니의 쓰임을 찾아내고 파악함으로써 결국 수사적 표현이 소설의 형상화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교과서에 실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는 이러한 다양한 아이러니의 쓰임을 실제 생활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활동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식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소설교육의 내용으로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3.2. 경험과 태도

국어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는 어떤 뜻을 담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해독될 때 비로소 하나의 의미가 된다. 우리는

서로 어울리며 언어활동을 하는 가운데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해석과 이해는 체험과 반응을 통해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심화되고 질서화됨으로써 국어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소설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험의 차원에서는 「운수 좋은 날」에 사용된 아이러니의 종류와 개념을 지식으로 터득하고 난 뒤 그것이 경험으로 학습자에게 어떤 의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고과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작품에 드러나는 아이러니의 의미작용을 이해하는 일이 현실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바로 경험을 통한 태도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운수 좋은 날」에서 발견한 아이러니를 다른 작품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가, 다른 작품을 읽으며 그 속에서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운수 좋은 날」에 사용된 아이러니와 비교해 볼 수 있는가 하는 활동들이 교육 내용으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상황의 아이러니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또는 언어의 아이러니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운수 좋은 날」에 나타나는 ①~⑥의 다양한 아이러니 형태를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에피소드와 연관하여 토의·토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도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 3.3. 수행

언어는 누구에게나 해결해야 할 과제(task)로서의 속성을 지닌다.<sup>23)</sup> 언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에는 자신의 발화에 상대가 응답하기를 바라

---

23) 김대행, 앞의 논문, 2005 참고.

는 목적이 숨어 있다. 이것은 해결되어야 할 일종의 과제인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제는 어떤 식으로든 수행되어야 한다. 언어의 속성이 과제이므로 그 해결을 위한 수행은 국어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행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운수 좋은 날」에 사용된 아이러니를 지식으로서 이해하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실제 활동이 된다. 「운수 좋은 날」에 나타난 다양한 아이러니들은 1920년대 노동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알 수 있다. 이는 수사적 표현이 작품의 형상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형상화에 일조하고 있는 수사표현으로서의 아이러니가 다른 예술의 장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은 아이러니의 개념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아이러니의 활용이 빈번하다. 플롯(상황)의 아이러니, 대사 및 인물, 장소, 소도구, 음악의 아이러니 등이 있다.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며 그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러니를 찾아내 분류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활동은 수사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에 기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아이러니 표현이 예술의 형상화에 어떤 방식으로 일조하게 되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또한 아이러니의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다. 아이러니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 이야기를 창작하는 활동은 단순한 사실의 이야기가 어떤 방식을 통해 형상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학습자들이 형상화 과정을 중심으로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의 조응관계를 이해하고 자아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행 측면의 교육 내용 연구가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 4. 방법론

교육은 실천이다. 국어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할 목적이 무엇이고 실천의 내용은 무엇이며, 실천의 절차 또는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따라야 한다. 언어를 다루는 소설교육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소설교육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가르칠 내용을 만들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절차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한 소설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아이러니의 개념과 소설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지식, 경험과 태도, 수행의 측면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목표,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방법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sup>24)</sup>

### 4.1. 목표

본고에서는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 그것들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성장(내면화)’이라는 소설교육의 목적을 추출해내었다. 여기서는 ‘개인의 성장’ 차원에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드러나는 ‘아이러니’를 분석하고 그러한 수법이 일상의 언어에서 문학의 언어로 변모하는 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러니의 작용을 통해 작품 세계 너머에 있는 삶의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자아의 내면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이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작품에 드러난 아이러니의 다양한 작용태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삶의 다양한 표현력을 생산하는 일은 이해교육을 넘어 표현교육의 차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위의 목적들을

---

24) 방법의 측면에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국한된 아이러니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한 소설교육 방법의 일반 원리를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논지의 전개상 이러한 방법의 원리는 아이러니를 통해 소설을 이해하고 자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방법으로서 시론의 성격이 강함을 밝힌다.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 작품을 감상하고 일상의 이야기를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데 작용하는 수사 표현으로써 ‘아이러니’의 개념을 파악한다.
- 작품에 내재된 ‘아이러니’의 다양한 작용태를 익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활용하여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4.2. 교수·학습 방법

본고에서는 소설교육의 목적으로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설정하였다. 개인의 내면화를 통해 자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자아 정체 확립이다. 이는 소설을 포함한 문학교육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Pinar의 Currere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자서전적 방법을 주목할 것이다.<sup>25)</sup> Pinar(2004)는 Tyler의 논리를 기초로 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이해’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yler의 모형은 교육과정의 절차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공헌에도 불구하고 목적·수단의 기능주의적 도식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sup>26)</sup> 이 모형에서의 목표는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과, 객관적인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주관적 의미 구성작용이 배제된다는 점, 인간의 원초적 세계인 반성적, 상황적 생활 세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인간을 둘러싼 외부 세계도 상황이나 맥락이라는 구성적 의미보다는 외현적 목표와 관련된 통제 가능한 거시적 개념을 상징하고 있다는

25) Pinar의 자서전적 방법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만드는 일은 소설교육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여기서는 소설교육의 목적인 ‘개인의 성장’을 위한 자아 정체 확립을 목적으로 소설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지 전개상 이에 대한 정지한 방법적 논의는 추후를 기약한다.

26) 이훈정, 「Pinar의 쿠레레 교육과정 탐색」, 『교육방법연구』14, 2002, 66쪽.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Pinar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과정 이해를 주장한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현실 속에서 개인이 갖는 경험과 그 의미를 파헤치고 이해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 그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실존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며, 각 개인들이 갖는 개별적 특수성을 강조한다. 그의 교육적 관심은 철저히 ‘개인(individual)’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Currere교육과정은 각 개인이 교육 속에서 갖는 내적 경험의 탐구가 된다. 그는 정신분석에 바탕을 두고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열두 가지로 지적한다.<sup>27)</sup>

- ① 공상적인 세계로의 도피와 거부
- ② 타인의 모방을 통한 자아의 분열과 상실
- ③ 자율성의 위축과 의존성의 증대
- ④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와 자기에의 상실
- ⑤ 인간관계 욕구의 왜곡
- ⑥ 자기 소외와 감각 마비 현상
- ⑦ 자기기준의 상실과 타인 지향성
- ⑧ 참된 자아의 상실과 객관화된 자아의 수용
- ⑨ 지배자의 논리 수용과 거짓된 자아정체감의 형성
- ⑩ 학교교육의 집단성과 개인적 세계의 상실
- ⑪ 무관심과 존재 확인의 기회상실
- ⑫ 미적, 감각적 지각 능력의 둔화

Pinar가 지적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경직된 학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문학교육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①, ④, ⑥, ⑦, ⑧, ⑨, ⑩, ⑪, ⑫는 학생들의 문학적

27) 이훈정, 앞의 논문, 72~74쪽 재인용.

삶과 실제 생활의 괴리가 초래한 심각한 문제와 일치하는 현상들이다. 이것들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소설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로 환원해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① 공상적인 세계로의 도피와 거부 : 학교교육의 통제성과 엄격성은 소설을 배우는 시간에도 아동들에게 확일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제약에 견딜 수 없는 일부 아동들은 소설을 배우는 동안에 많은 시간을 개인적인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일부 아이들은 소설 텍스트를 통해 파생되는 자연스런 공상까지도 억누르면서 억지로 현실에 집착하고자 애쓰게 된다.

⑦ 자기 기준의 상실과 타인 지향성 : 서열을 위한 학생들의 작품 이해 능력 평가는 아동들을 자기 기준을 버리고 타인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아동들의 행동의 내적 동기는 사라지고 외적 동기가 지배하게 되는 동기의 전도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로 아동들은 부모나 선생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점수를 따기 위해 소설 텍스트를 접하게 된다.

⑧ 참된 자아의 상실과 객관화된 자아의 수용 : 소설교육에서의 우등생은 작품에 대한 뛰어난 감상자라기보다 단편적 지식을 많이 축적한 아동들이다. 그들은 이해와 감상이 아닌 분석에 의해 얻은 지식들을 많이 습득할수록 ‘공부 잘 하는 학생’이란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객관화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받는 아동들은 객관화된 자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주체적인 목적을 갖는 참된 자아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⑨ 지배자의 논리 수용과 거짓된 자아정체감의 형성 : 문학교육을 효과적

---

28) Pinar가 지적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현행 소설교육의 현상에 그대로 적용해 본 것이다. Pinar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훈정, 앞의 논문, 72~74쪽에서 재인용하며, 소설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일정 부분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행평가와 서술식 답안 등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도구 역시 아동들의 생각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도에 적절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측정에 몰입되어 있다. 아동들은 교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마찰을 피하고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가면을 쓰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아동들로 하여금 거짓된 자아 체계를 만들도록 한다.

⑩ 무관심과 존재 확인의 기회상실 : 남다른 소설적 상상력을 보이는 아동들이 소설을 배우는 현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교사들 가운데는 학교 성적과 무관하게 문학적 재능을 보이는 아동들을 어떻게 지도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아동들은 교사의 무관심 속에 자신에게 소설적 재능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존재감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Pinar가 지적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소설교육의 문제로 환원 하더라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고진호(1993)는 제도권 교육에서 세분화된 교과체계의 분류와 ‘상징적 지식’이 아동에게 경험을 통한 이해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범답안 지향’식의 교육은 ‘개인적 삶’과 ‘추상적 삶’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여 ‘비인격화’와 ‘정체성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한다.<sup>29)</sup> Pinar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이해’를 주장한다. Currere교육과정은 개인의 생생한 삶의 경험적 역사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개별적 경험의 특별한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Currere교육과정의 방법으로 개인의 내면화를 밝혀내기 위해 소급(regressive), 전진(progressive),

29) 고진호, 「교육경험의 질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동국대 박사논문, 1993, 181쪽.

분석(analytic), 종합(synthetic)이라는 4단계의 독특한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도입한다.<sup>30)</sup>

① 소급의 단계에서는 인간의 삶 혹은 실존적 경험을 자료로 사용한다.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인간은 자유로운 연상을 통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의 기억을 확장한다.

② 전진의 단계에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에 스며있는 미래에 주목한다. 자기 성찰을 통해 심사숙고하는 학생은 이 단계에서 설정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게 된다.

③ 분석의 단계에서 학생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검토한다. 이 때 분석은 인식의 틀로 기능하는 의식을 문제 삼는 현상학적 방법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④ 종합의 단계에서 학생들은 생생한 현실로 돌아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문한다.

Pinar는 이러한 4단계 방법을 제시하며 자서전에 주목한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읽고 수정하는 일을 통해 발달과정이 촉진되는 것으로 믿는다. 학습자가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궁극적인 중요성으로 여긴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것이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게 되는데, 이때 이미 지나간 경험에 대해 번역과 해석의 과정이 시작되며 또 대화로 확대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경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발달이 촉진된다고 한다. Pinar는 자서전적 방법을 통해 확실적인 한 가지 경험이 각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됨으로써 자신의 ‘참 자아’와 ‘거짓 자아’ 사이에서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교육문화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개인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경험과 성향이 온전히 그대

---

30) 이훈정, 앞의 논문, 78~79쪽.

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괴리감이나 소외감 없이 자신의 경험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문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개인의 내면화에 중점을 둔 자서전적 방법은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한 소설교육의 방향 정립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Pinar가 주목한 자서전적 방법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연상을 통해 자유롭게 말하고 듣는 과정을 전개하며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러한 자아의 깨달음은 쓰기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접점인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파악된 자신의 정체성은 실제 생활 속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총체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현재적 자아는 작품 속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소급, 전진, 분석, 종합의 단계는 다시 교수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재구성된다.<sup>31)</sup>

〈제1단계〉 자신의 교육 경험을 있었던 그대로 쓰기 : 지금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왜 발달되어 왔는지를 알기 위해 자서전적으로 글을 쓴다. 경험을 쓰는 과정은 그 경험에 어떤 원리와 형식이 작용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제2단계〉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말이나 글로써 반응하기 : 글로 써놓은 경험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데 작용했던 가정이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하여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대화의 형태로 반응하며,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과 타인 및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을 만들어간다.

〈제3단계〉 타인들의 경험을 분석하기 : 다른 사람의 교육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공감한다. 이러한

31) 김경자, 『학교교육과정론』, 교육과학사, 2000, 392쪽, 참고.

과정을 통하여 교육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볼 수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모습과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교육 본래의 모습을 구분하여 인식하게 된다.

Pinar가 제시한 위의 3단계 자서전적 방법은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찾아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먼저 교사의 측면을 살펴본다면, <제1단계>에서는 교사가 수업에서 느낀 학습자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학습자의 교육경험을 쓰는 과정은 그 경험에 어떠한 원리와 형식이 작용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제2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가 글로 써 놓은 경험 속에서 학습자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데 작용한 가정이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대화의 형태를 통해 학습자의 세계 인식과 전망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제3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묻고 확인한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교사는 교육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볼 수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모습과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교육 본래의 모습을 구분하여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아나온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측면을 살펴본다면, <제1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현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왜 발달되어 왔는지를 알기 위해 고백적인(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포함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제2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글로 써 놓은 경험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데 작용했던 가정이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 때 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이 대화의 형태로 반응하며,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과 타인 및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을 만들어 간다. <제3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공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하여 교육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볼 수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모습과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교육 본래의 모습을 구분하여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서전적 방법은 아이러니를 활용한 소설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재개념화될 수 있다. 위의 3단계 자서전적 방법의 핵심은 잃어버린 참 자아를 찾는 데 있다. 학교의 제도적 교육 기획에 의해 집단화되고 획일화된 몰개성의 자아를 자신에 대한 자유연상과 대화, 자서전 쓰기, 자기경험에 대해 종합적 분석하기를 통해 참된 자아로 되돌려놓는 일은 교육의 진정(眞情)적 측면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아이러니의 활용을 통해 개인의 내면화를 이룩하려는 소설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단,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 읽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미리 배워야 할 작품을 읽고 교실 수업 상황에 임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자서전적 방법을 활용하여 아이러니의 소설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해보면, 위의 3단계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습자의 측면을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교사의 측면을 생각해본다면, <제1단계>에서는 교사가 소설을 읽고 온 학생들과 작품 감상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시도한다. 작품을 감상하고 온 학습자들에게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이러니의 사례들을 자신의 상황과 연결하여 자유롭게 연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습자의 생각들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빠짐없이 기록한다. <제2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작품에서 드러난 아이러니의 사례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경험과 연관하여 짧은 글을 쓰게 한다. 이 때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존중하되 엉뚱한 해석으로 흐르지 않도록 몇 개의 주제를 정해준다. 예를 들어 인물과 인물의 아이러니, 인물과 사건의 아이러니, 인물과 배경의 아이러니, 인물과 독자의 아이러니, 시점의 아이러니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화소들을 미리 읽어 온 작품 속에서 찾아내어 자신의 생활경험과 연관지어 글을 쓸 수 있게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글로 써 놓은 경험 속에서 학습자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데 작용한 가정이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대화의 형태를 통해 학습자의 세계 인식과 전망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제3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이 쓴 글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의 문학경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감상한 소설 작품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묻고 확인한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교사는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의 특징과 본연의 문학적 가치를 알 수 있게 되고, 문학 자체의 아름다움과 학습자에 의해 의미화된 문학의 또 다른 모습을 구분하여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문학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측면을 생각해본다면, <제1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수업 전 읽고 온 소설 속에서 다양한 아이러니의 사례들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활경험과 연관지어 자유롭게 대화한다. 아이러니의 기법을 통해 작품의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기법적 형상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깊이 생각하여 말한다. <제2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읽고 온 작품을 교사가 준비해온 자료에 따라 글로 써본다. 예를 들어, 교사가 인물과 인물의 아이러니, 인물과 사건의 아이러니, 인물과 배경의 아이러니, 인물과 독자의 아이러니, 시점의 아이러니 등의 용어들을 제시하면 학습자는 읽어 온 작품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활경험과 연관지어 글을 쓴다. 학습자는 글을 구성해나가는 경험 속에서 아이러니 기법을 활용하는 동안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데 작용했던 가정이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 때 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이 대화의 형태로 반응하며,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과 타인 및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을 만들어 간다. <제3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대화를 통해 알아가며 글 속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학적 가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공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학 자체의 아름다움과 자신들에 의해 의미화된 새로운 문학작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문학 고유의 본래적 속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문학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문학 작품 속에서 찾아보며 작품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생활에 창조적으로 재적용해 보는 방법은 문학적 삶과 실제 생활이 괴리된 현재 소설교육의 실정에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가 하나의 작품을 두고 글쓰기와 대화를 통해 작품의 형상화 과정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일은 소설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소설교육에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내재된 ‘아이러니’를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논의해 보았다. 작금의 문학교육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면서도 왜 여전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장의 여러 가지 제반을 고려한다면 비단 문학을 가르치는 일에서 비롯한 문제들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학교육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조적 모순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제일 큰 문제들부터 차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학교에서의 문학 경험과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학적 경험의 괴리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문학·문화생활의 고양이 정립된 것은 아닐까. 본고에서는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하여 소설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이러니야말로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사용되는 수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적 표현기법이 일상의 언어를 문학의 언어로 변모시키는 힘임을 우리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통해 살펴보았다. 현진건의 작품을 살펴본 이유는, 현행 교과서에 실린 「운수 좋은 날」에는 다양한 아이러니 기법의 이해와 그것을 실제 생활

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중심으로 아이러니 기법을 통한 소설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고찰해 본 것이다. 앞으로 소설을 포함한 문학교육은 일차적으로 현실 세계와 문학 세계의 언어 관계를 밝히는 가운데 자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교재의 원리와 교수·학습 모형, 평가도구를 제작하지 못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 제시에만 그친 점은 이 논고의 한계이다. 이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추후를 기약하겠다.

<주제어> 아이러니, 형상화, 자아성상, 지식, 경험과 태도, 수행, 목표, 교수·학습

## 〈참고문헌〉

- 고진호, 「교육경험의 질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동국대 박사논문, 1993.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2007.
- 구인환 외,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9.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7.
- 김경자, 『학교교육과정론』, 교육과학사, 2000.
- 김기찬·김동환, 「개념적 혼성과 아이러니의 의미구성」, 『언어과학연구』, 2003.
- 김대행, 「국어교육의 목표와 영역」, 『선청어문』25, 1997.
-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과제」, 『청람어문교육』25, 2002a.
- 김대행,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10, 2002b.
- 김대행, 「국어교육을 위한 언어재개념화」, 『선청어문』30, 2002c.
- 김대행, 「청산별곡과 국어교과학」, 『고전문학과 교육』7, 2004.
- 김대행,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22, 2005.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2005.
- 김대행, 『문학교육 뜯짜기』, 역락, 2006.
- 김상욱, 「문학교육의 목표시론을 위한 고찰」, 『국어교육연구』1, 1994.
- 김성진, 「아이러니를 통한 소설의 현실인식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 김중신,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1997.
- 나병철, 「현진건 소설의 아이러니와 탈식민주의」, 『현대문학이론연구』13, 2000.
- 남민우, 「문학교육 목표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학교육학』22, 2003.
- 문영진,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읽기의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2006.
- 박인기,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 서울대출판부, 2001.
- 박정숙, 『소설교육에 관한 연구』, 경성대 박사논문, 2001.
- 박준영, 「Richard Rorty의 대화와 아이러니에 대한 교육적 의의」, 『교육철학』, 2003.
- 이성영,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5.

- 이정국, 「영화에서 아이러니의 종류와 그 활용사례」, 영화연구, 2003.
- 이혼정, 「Pinar의 쿠레레 교육과정 탐색」, 『교육방법연구』14, 2002.
- 임경순, 「인물 형상화 양상을 통한 소설교육연구-채만식 풍자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5.
- 최미숙, 「문학교육에서의 평가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1, 2000.
-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6.
-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2001.
- 한용환,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1995.
- 현진건, 『현진건 전집 3. 조선의 얼굴』, 문학과 비평사, 1988.
- 스테인 H. 올슨, 최상규 옮김, 『문학이해의 구조』, 예림기획, 1999.
- Tim Mcnamara, 강성우 외 옮김, 『언어평가』, 박이정, 2001.
- William F. Pinar, Curriculum Toward New Identities, Garland Publishing, 1998.
- William F. Pinar, What is Curriculum theor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2004.

〈Abstract〉

## Educational study of irony contained by Hyun jin gun' s one lucky day

Jeon, Han-sung

This report inquires into the idea of irony that included by Hyun jingun's one lucky day as a subject to find a new direction of novel education. first, I pointed out scarcity of a study that try to approach the idea educationally. the study that how irony make reality a literary work, and that how a person completes an ego-maturity through a comprehension that reality having a style maturate to a completed literary work is not enough yet. so this report focus on this point.

Furthermore this report finds a literary educational meaning of the various irony ideas and historiographical expressions and supplies educational methods. The irony is a historiographical expression used frequently. we can understand that this historiographical expression that turns normal language to literary language pratices a fundamental

role by Hyun jingun's one lucky day. From now, a novel education should focus on a research that find a relation between real language and literary language. and many vigorous studies should be executed to help personal ego-maturity completed through the correspondent recognition to student about fiction and non-fiction.

Key words : irony, configuration, ego-maturity, knowledge, experience and attitude, execution, aim, teaching · study

이 논문은 2009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